



제3회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출장 결과보고-

2017. 12. 14

|| 목 차 ||

I. 출장 개요	1
1. 출장 기본계획	1
2. 출장 일정	2
3. 출장 대상자 현황	5
II.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결과	6
1. 발표주제	6
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7
3. 업무협약 체결	17
III. 중국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18
1. 자선마트 'Buy for TWO'	18
2. 교육 사회적기업 'Be Better'	21
3. 시에즈 여관(청년 취업·창업학교)	23
4. 교육 사회적기업 'Be Better'	25

1. 출장 기본계획

□ 개요

- 일 정 : 2017년 12월 4일 ~ 12월 9일(5박 6일)
- 주 관 : 중국상해교통대학,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 인 원 : 7명(산업통상자원부 2명, 충청남도 1명, 충남연구원 4명)
- 방문도시 : 중국 상하이, 항저우

□ 출장 내용

-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개최
 - ⇒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책동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현황 및 과제, 현장 사례 등 한국 사회적경제 관련 발표 추진
 - ⇒ 지속발전과 중국 사회적기업의 발흥, 상해사회관리와 사회혁신, 중국 사회적기업 발전정책과 실천 등 중국과 상해의 사회적경제 관련 발표 추진
- 중국 사회적경제조직 현장답사
 - ⇒ 항주携職旅社、携職취업창업학원,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團) 등 중국의 사회적경제조직 답사 추진
- 충남연구원-상해교통대학교 기관교류
 - ⇒ 올해 충남연구원(사회적경제연구센터)과 상해교통대학교의 교류 지속 및 확대 운영을 위한 교류협력 관련 논의 추진
 - ⇒ 향후 상호협력할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와 추진방향 설정 추진

2. 출장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1일차: 12월4일 (월)			
오후	--	한국측: 상하이 도착, 건국호텔(建國賓館) 체크인	
저녁	18:00-20:00	환영만찬	상해교통대 측 : 장운닝(姜文寧)(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당위서기 쉬자량(徐家良)(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원장/교수)
2일차 : 12월5일 (화)			
오전	9:00-9:45 (45')	개회식 및 축사 협약서 체결식 단체사진	사회 : 장운닝(姜文寧)(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당위서기 평보(彭勃)(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부원장) 축사 : 상해교통대학 임원 한국 주상하이총영사관 대표 한중 협력 대표
	제1세션 : 한중 국가 관리와 사회적경제		
	9:45-10:15 (30')	주제1 : 충청남도 현황과 충남연구원 소개	송두범(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0:15-10:45 (30')	주제2 : 중국 국가관리와 사회 전환	쉬자량(徐家良)(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원장/교수)
	10:40-11:00 (20')	Coffe Break	
	11:00-11:20 (20')	주제3 : 지역 발전 정책과 사회적경제	정경록(한국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장)
	11:20-11:40 (20')	주제4 : 중국 취업·창업과 사회적 기업	팡시(龐詩)(중국인사과학연구원 취업·창업과 정책 평가 연구실 부주임)
	11:40-12:00	주제5 :	쉬쥘(徐君)(수도경무(首都經貿)대학

	(20')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시사점	경제와 공공관리학원 교수)
정오	12:00-13:30	오찬	
오후	제2세션 :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정책		
	13:30-14:00 (30')	주제6 :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박준섭(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14:00-14:30 (30')	주제7 : 상하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 혁신	타이평봉(台朋峰)(상해체육학원 부교수/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박사후)
	14:30-14:45 (15')	Coffe Break	
	14:45-15:15 (30')	주제8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	한기수(충청남도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15:15-15:45 (30')	주제9 : 사회적기업 발전 정책과 실천	위안뤼권(袁瑞軍)(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부교수)
	15:45-15:55 (10')	최종 발언	취자량(徐家良)(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교수/ 중국공익발전연구원 원장)
	15:55-16:30 (30')	상해교통대학학교 교사관() 관람	
	16:30-20:30 (240')	만찬 및 상하이 시내 관람	
3일차 : 12월6일 (수)			
오전	제3세션 : 미래 지향적 사회적경제의 실천		
	9:00-9:25 (25')	주제10 : 사회적기업의 창업투자기금 실천 공유	후진싱(胡錦星)(증아이(增愛)공익재단 이사장)
	9:25-9:50 (25')	주제11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사례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9:50-10:15 (25')	주제12 : 미국 사회적기업 발전현황과 전망	우뤄(吳磊)(상해공학기술(工程技術)대 학 부교수/ 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박사후)
	10:15-10:25	Coffe Break	

	(10')		
	10:25-10:40 (15')	주제13 : 일본 사회적기업 소개	위주청(俞祖成) (상해외국어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부교수)
	10:40-10:55 (15')	주제14 : 한국 사회 미래와 사회적 경제	홍원표(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0:55-11:15 (20')	주제15 : 공평무역과 서부개발	천라충(陳樂從) (르창공평무역 설립자)
	11:15-11:45 (30')	종합 토론 : 사회적경제의 미래	사회 : 루용빈(盧永彬)(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조교수/제3섹터연구중심 부주임)
정오	11:45-13:00	오찬	
오후	13:00-18:00 (300')	현지 답사 1. 산타오닷컴-자선마트(善淘網-慈善超市)<징안구> 2. 배트교육-차이상교육(百特教育-財商教育)<푸둥구> 3. 상하이타워(上海中心大廈)	
저 녁	18:00-20:00 (120')	만찬 (건국호텔)	
4일차 : 12월7일 (목)			
오전	9:00-9:30	답사 : 칭푸구 신쟁농장(青浦新耕農場)	
오후	9:30-14:00	답사 : 칭푸구 주자오웨이상(青浦朱家角水鄉)&오찬	
	14:00-16:30	이동(상하이→항저우 시에즈여관<携職旅社>) (시에즈여관 주소 浙江省杭州市西湖區文三路555号)	
	16:30-18:00	답사 : 항저우 시에즈여관/시에즈취업창업학원 사회 : 쑤다위(孫大偉) (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원장비서) 특별 초청 귀빈 : 운샤오보(溫少波)(시에즈여관 대표/시에즈 취업창업학원 설립자) 묘칭(苗青)(절강대학(浙江大學) 공공관리학원 교수) 우중취안(吳忠泉)(진두(金都)부동산그룹 사장)	
저녁	18:00-20:30	1. 만찬 및 호텔 체크인 2. 항저우 시내 관람 : 서호(西湖) 세계문화유산 등재)	
5일차 : 12월8일 (금)			
오전	9:00-11:30	아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탐방	
정오	11:30-13:00	오찬	
오후	13:00-17:30	항저우 시내 관람 : 중국차(茶)박물관, 시시습지(西溪濕地)	
저녁	17:30-20:30	환송 만찬	
6일차 : 12월9일 (토)			
-	--	한국측 귀국	

3. 출장 대상자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 2명
 - 산업부와 중국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 소개 및 전파
- 충청남도 : 1명
 - 충청남도 차원에서 중국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공유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 2명
 - 충청남도 현황 및 미래전략 관련 연구 성과 공유
 - 사회적경제의 향후 과제와 정책 제시
- 충남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 2명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및 연구 성과 공유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장 사례 공유

성명	소속/직위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장
박한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 사무관
한기수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박춘섭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이홍택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II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결과

1. 발표 주제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① : 12월 5일(화)		
1	충청남도 현황과 충남연구원 소개	송두범(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2	사회적기업 발전 정책과 실천	위안취권(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부교수)
3	지역발전정책과 사회적경제	정경록(한국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장)
4	중국 전자상업발전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팡시(중국인사과학연구원 취업·창업정책 평가 연구실 부주임)
5	미국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발전과 시사점	우뤄(상해공학기술(工程技術)대학 부교수)
6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박춘섭(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7	중국 거버넌스와 사회 변화	쉬자량(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원장/교수)
8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	한기수(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9	상하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 혁신	타이펑핑(상해체육학원 부교수)
10	사회적기업의 협동거버넌스 : 아이더 제빵의 발전여정	위미안(북경 이공대학교 공공사무학원 강사)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② : 12월 6일(수)		
11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사례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12	사회적기업의 창업투자기금 실천 공유	후진싱(증아이(增愛)공익재단 이사장)
13	복지기업부터 사회적기업까지	쉬쥘(徐君)(상해 공정기술 대학교 부교수)
14	한국사회 미래와 사회적경제	홍원표(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5	일본 사회적기업의 발전	위주청(상해외국어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부교수)
16	공평무역과 서부개발	천리충(르황공평무역 설립자)

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①중국 사회적기업 발전 정책과 실천

○ 발제자 : 위안뤼권,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부교수

○ 주요 내용

- 중국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송대부터 시작하였으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2004년 류지동 교수가 OECD(1999년)의 「사회적기업보고서」를 번역하면서 시작
- 중국에서는 「21세기 비즈니스 평론」, 「중국제3부문 연구」 등의 발간물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민간 차원에서 '중국 자선 사회적기업 인증' 행사를 개최하여 7개 기업을 인증하였음.
- 중국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산둥 치웬현, 스촨성 청두시, 북경시, 광둥성 선전시 등에서 정부 논의 안건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첫째, 해외의 개념이 차용 둘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셋째, 비영리부문에서 주도, 다섯째, 대도시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임
- 민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인증기준을 갖고 있는데, ①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것, ②사회변혁의 기회를 식별해낼 수 있을 것, ③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을 지닐 것, ④사회적 목표의 안정성을 지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청두시는 사회적기업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사회적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 선전시에서는 사회영향력투자(SIB)를 추진 중에 있음

○ 시사점

- 중국 사회적기업의 이념과 실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나, 최근의 개념은 외국의 것을 차용하고 있음
- 중국 사회적기업은 민간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임
- 사회적기업은 중국에서 10년간 발전을 거쳤으며, 최근 2년간은 급속한 성장을 거두고 있음. 그러나 중국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②중국 전자상업 발전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 발제자 : 팡시(중국인사과학연구원 취업·창업정책 평가 연구실 부주임)

○ 주요 내용

-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1조 915억, 전체 상거래액의 8.7%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룸
- 중국의 경우에도 2016년 22조 97억원에 달하며, 타오바오, 웨이신, 알리바바 등 다수의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
- 중국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직접적인 종사자는 270만명, 간접종사자는 2000만명을 넘었으며, 10년동안 약 150% 이상 성장
- 또한, 「2016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 리포트」에 따르면 공유경제 영역에서 약 5,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디디기업은 1,300만명의 운전기사 일자리를 창출
- 그러나, 전자상거래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5년 이상 근속년수는 30%도 되지 않으며, 근속년수 1년 미만이 20.8%, 1~3년 미만이 33.8%를 차지

○ 시사점

- 전자상거래는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 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
- 대다수의 인터넷 기업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종사자들의 취업 신분이 모호해 취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사회보장보험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종사자들은 고용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인 만큼, 일자리의 질 및 고용여건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③미국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발전과 시사점

○ 발제자 : 우뤄(상해공학기술(工程技术)대학 부교수)

○ 주요 내용

- 미국은 사회적기업이 시민사회와 시장을 융합시키고 있으며, 특히 환경 정책에 따라 다양한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발달
- 미국의 환경 사회적기업은 환경거버넌스와 생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시장과 시민사회를 결합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

- 환경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과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을 보호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델타기업이 대표적임. 본래 비영리기구인데, 이 기구가 3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 첫 번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탄소 저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회적기업은 금융사업을 추진, 마지막 사회적기업은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곳임
- 미국의 녹색건설위원회가 있는데 그린 빌딩 관련 건축설계 및 인증을 다루고 있음. 매일 92,000개 프로젝트에 220만평방피트가 인텍스 시스템을 통해 인증됨. 수입은 회원들의 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회비를 받고 있으며, 96%의 수입을 회비로 충당

○ 시사점

- 미국은 잘 정비된 제도환경, 시민사회의 발전, 조직형성의 다원화, 새로운 법인체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 제3부문 조직의 사회적기업 인증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환경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지지가 있다는 점이 있음
- 이것을 제외하고도 미국의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시민 참여를 높이지 않았나 생각함
- 그리고, 다양한 정책이나 혜택을 통해 재생가능한 연료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데 세수를 감면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 녹색건축에 관해서는 개인이 녹색건축물을 샀을 때 세금 감면과 다양한 혜택이 있음

□ ④중국 거버넌스와 사회변화

○ 발제자 : 쉬자량(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원장/교수)

○ 주요 내용

- 중국에서 국가관리, 정부관리, 사회관리는 오랫동안 사용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국가 거버넌스, 사회 거버넌스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
-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정부라는 틀 안에 기업과 사회조직이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으로 사회단체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
- 중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빈곤계층과 약자계층 및 특수계층이 해당. 특히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임

- 중국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4가지가 존재. 첫째,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국가정책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임. 둘째, 사회적기업은 공공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이는 중국 법률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두가지만 인정하기 때문. 셋째, 사회적기업은 민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상황.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인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민간에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는 낮은 상황
- 중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됨. 첫째, 중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도입 필요. 둘째, 사회적기업 인증 표준안 개정 필요. 셋째,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 공개,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필요

○ 시사점

- 중국은 영리와 비영리로 이분화 하는 개념을 버리고, 영리, 영리·비영리, 비영리라는 삼분법 도입 필요

□ ⑤상하이 사회적기업과 사회혁신

○ 발제자 : 타이핑퐁(상해체육학원 부교수)

○ 주요 내용

- 상하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동향으로는 2008년 상하이 재경대학교에서 사회적기업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상하이에는 비교적 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은 10개에 불과
- 또한, 발전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조직규모도 작은 것이 상하이 사회적기업의 현실
- 상하이에서 사회적기업을 채택하는 이유는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기업 운영방식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확장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절충적 선택임
- 상하이에서 ‘상하이 청년 제빵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이 기업은 2008년 12명의 프랑스 청년이 상하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프랑스식 베이킹 양성과정을 ‘고아’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작
- 프로젝트 초기에 프랑스 협력식품 기업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서양식 파티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국가인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음

○ 시사점

- 중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중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이론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인지도 향상 등이 필요

□ ⑥ 사회적기업의 협동거버넌스 : 아이더 제빵의 발전여정

○ 발제자 : 위미안(북경 이공대학교 공공사무학원 강사)

○ 주요 내용

- 아이더 빵집은 아이더 기금회가 창립한 NGO에서 2007년 설립하였으며, 설립 목적은 지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정기간의 실습을 통해 지적장애자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이 기업의 관리구조는 상무이사과 총경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상무이사는 빵집의 공익성을 담당하며, 총경리는 기업경영을 담당하고 있음
- 운영 방식은 아이더기금회로부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빌려 제빵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빵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
- 수입은 세금 납부, 일상경영비용 충당, 교육생들의 취업자금 및 교육자금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지속경영을 위한 수익 다원화를 위해 매장운영, 인터넷 판매, 자선 바자회, 기업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 시사점

- 아이더빵집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 자선바자회, 공동구매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성과와 경영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분리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

□ ⑦ 사회적기업의 창업투자기금 실천 공유

○ 발제자 : 후진생(증아이(增爰)공익재단 이사장)

○ 주요 내용

- 증애 공익재단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 지원을 수행
- 사회기금의 목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기금의 원칙은 선량한 마음을 기초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이념을 갖고 있음
- 증애재단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업적 성과는 적는데 SIB 기금 비중이 7천만 위안 정도에 달함
- 증애재단의 투자 사례로 영국 대사관, 문화교류처와 협력을 해서 관련된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진행함. 이 기업은 문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부 소수민족의 빈곤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임. 2010년부터 연간 3년간 60만 위안을 투자함

- 두 번째 사례는 산시성에 있는 부녀발전협회임. 소액의 대출을 담당하는 협회이고 부녀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음. 이 조직에도 2012년부터 연속해서 매년 20만을 투자함
- 세 번째는 시에즈 여관(취업창업학원)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기업임. 이 기업도 2012년부터 20만을 투자, 이 기업과 장기적으로 합작할 계획임
- 네 번째는 서안미술관장애인센터인데 농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을 목표로 세워졌음. 농아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증애 기금회가 센터를 만들 일자리를 창출을 지원하고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담당함. 그러나 학교 간부가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없어졌음
- 증애재단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재단인 만큼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나 대출을 해주고 돌려받는 돈을 증여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사회적기업 중 북경노인센터 20만, 북경문화발전센터 40만, 대련전자상양성기업에 대출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나 이론 연구가 필요하며, 지금 중국은 사회적기업도 적고 투자액도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시사점

- 증애재단이라는 기금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편법 형태로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함

□ ⑧복지기업부터 사회적기업까지 : 상하이 연구를 중심으로

○ 발제자 : 쉬쥘(徐君)(상해 공정기술 대학교 부교수)

○ 주요 내용

- 1997년에 복지기업관리처를 설립하여 복지기업에 대한 설립 및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부실운영으로 인해 2007년도부터 복지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증제를 도입
- 이는 복지기업 수의 감소, 장애인 고용율이 지속적으로 저하, 복지기업의 경영 부실 등 복지기업이 직면해 있는 문제로 인한 것임
- 이러한 복지기업의 부실이 가속화 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2006년 44%에서 2014년에 33%로 저하
- 특히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지기업 조사결과 73개의 복지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

고 있으며, 2009개 기업이 매년 50만 위안의 매출액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매년 복지기업들이 없어지는 추세였음

- 특히 복지기업은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최저 생존이 가능하게 할 정도였지,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녘음
- 따라서, 많은 복지기업들이 인증자격을 취소했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든 복지기업이든 영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상하이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선단체나 기금회 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시사점

- 과거 한국의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해왔던 것처럼 중국의 복지기업도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에서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정책적 배경과 모델에 대한 전파가 필요함

□ ⑨일본 사회적기업의 발전

○ 발제자 : 위주청(상해외국어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부교수)

○ 주요 내용

- 일본 사회적기업은 2014년 20만개를 돌파하였으며, 매출액은 16만엔(GDP 3.3%), 정규직 고용은 577만명에 달함
- 일본에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한 것임. 일본의 시민사회는 「사회적기업가 선언」에 12,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활발하며, 정부에서는 정부조달제도 및 NPO법을 통해 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일본 기업들은 CSR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매년 평균 4억 2천 6백엔을 CSR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 일본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는 중소기업, NPO법인, 일반사회단체, 공익사회단체 등

○ 시사점

- 정부, 기업, 민간 등 세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전을 추진
- 정부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
- 기존 법인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종합 토론

○ 좌장 모두발언(루용빈, 상해교통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 조교수)

- 중국에서 사회적경제는 홍콩, 대만 세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데 각각 특성이 다름. 홍콩이나 대만은 대륙 내부보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언어가 같고 같은 민족이기에 마주하는 문제는 비슷한 상황
- 중국의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중국은 대륙이 굉장히 크기에 지역별로 다르게 발전해옴. 따라서 지역문제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지역을 모두 알아야만 중국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알 수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할 일이 많고 알기에도 쉽지 않음. 각각 지역의 학자들의 공무원의 참여 등이 필요함
- 이렇게 단계별로 사회주의 특성이 있는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금 중국 사회적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겠음
 - 사회적기업 개념정립의 문제임. 많은 사람이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운영모델이 부족함.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들이 지속되지 않음. 프로젝트가 진행하면서 배우는 만큼 모델화가 필요함. 진행되는 교육이나 양성과정이 충분하지 않음
 - 자금의 조달문제임. 지금 수익을 내는 이외에 밖에서 자금을 대출 및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중국의 공익권이나 금융권의 협력이 있는 상태는 아님. 지금 중국의 금융분야에서는 녹색경제, 녹색건설에 집중. 사회경제와 관련한 융자는 영향력이 거의 없음.
 - 혁신성의 문제가 있음. 어떤 것이 사회적기업을 위한 혁신인지, 혁신의 개념을 나누어서 정하는게 어려움.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영역에서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 일을 하면서 배우며, 배우는 와중에 방법을 발견하고 연구를 해가는 과정에 있음
- 사회적기업이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같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 교통대학교에서는 제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 그래서 북경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면서 협력해 나가고 있음
- 교외 지역으로 많이 사례조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고 있음

- (한국측 질문) 중국 측에 질문이 있다. 중국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독특한 특징이 당 조직이 모든 조직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 사회적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당 조직의 건설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 (답변) 중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영리와 비영리 두 개의 조직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정책을 담당할 조직에 당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 (중국측 질문) 한국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답변1) 그러한 우려로 인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법제도 마련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다. 사회적경제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답변2)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100대 과제로 채택하였는데,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사회적경제가 진입했다는 것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봤을 때 전체 모양은 생태계, 제반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찍힐 것으로 생각됨. 방식에 있어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데 지원
- (중국측 질문) 한국에서 미국의 B-corps는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지?, 중국에서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들려고 했는데 영향력이 커서 거부당함.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가능한지?, 국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한국에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 (답변1) 한국에서 미국의 B-corps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 (답변2) 한국에서 공유경제는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 기업도 인증절차를 거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함
 - (답변3) 한국에서 국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으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답변4)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이 약 1,400개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3천개 수준. 인증 제도로 인해 협의의 사회적기업 개념이 적용되어 실제보다 많이 작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국제세미나 사진



3. 업무협약 체결

한국 충남연구원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교류 협약서

2015년 10월, 한국 충남연구원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제3센터연구중심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12월, 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은, 제3센터연구중심 10년 발전의 기초 위에서 설립한다. 지난 2년간, 충남연구원과 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이하에선 '양방')은 협력교류를 통해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방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적인 협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 관련 분야의 협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은 합의에 도달하여, 본 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양방이 희망하는 협력의 영역은 제 3 센터의 각 방면인데, 중점은 사회적기업, 농촌 마을기업과 도시지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혹은 합작사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

- 제 2 조**
위 영역의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방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 현재 한·중 양국의 사회 경제 분야의 이론과 실천 문제에 대한 협력 연구를 전개하며, 동시에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전문 연구를 진행한다.
 2. 한·중 양국 충청남도 지방정부와 상하이스의 관련 기술인력과 전문가가 상호 방문하고, 연구영역에서 그들의 경험교류와 학습을 추진한다.
 3. 양방 책임자와 관련 지정인력은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고, 양방 간의 정보 소통과 행동 협조 기제의 구축을 추진한다.
 4.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공동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5. 관련 현지 시찰 및 조사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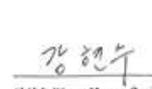
제 3 조
양방은 상호 파견 대표단의 현지 시찰 및 세미나에 참가하는 활동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방문측은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인력을 조직하여 현지 시찰과 세미나에 참가한다. 현지 시찰과 세미나를 통해, 전문인력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더욱 많이 습득하며 실천 동력을 제고한다.
2. 주최측은 본국의 시찰과 세미나 기간 동안의 편의, 즉 식사섭외, 장소 제공 및 숙박 등 편의를 책임진다. 현지 시찰과 세미나 내용은 양방이 협상하여 일치된 후에 진행한다.

제 4 조
양방은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의 의무가 있다. 협력 연구에 대해 말하면, 각 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금의 투입은 각 측이 스스로 부담한다. 시찰단 파견 및 세미나 참가 시, 국제여비는 원칙적으로 방문측이 부담한다.

제 5 조
양방의 협력은 본 협약서를 기초로 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매년 하나의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며, 대표단의 방문인원 수는 5-6 명으로 대략 1 주 정도를 머물다. 매년 대표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는 양방의 협상과 동의가 필요하다.

제 6 조
본 교류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 똑 같은 양식의 2부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2017년 12월 5일 중국 상해교통대학 위후이(徐匯)캠퍼스에서 체결한다.



 강현수(Kang Hyun-Soo) 원장 이자량(Xu Jia-Liang) 주임
 한국 충남연구원 중국 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① 자선마트 'BUY for TWO'

□ 설립 배경

- 중국의 경우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50%에 달하며, 특히 장애인은 최저 생활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이외에 취업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한편, 매년 중국내에서 버려지는 옷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이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버려지는 옷의 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이 기업을 설립한 창업가는 중국이 처한 문제의 해결, 즉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활용되는 물건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게 됨

□ 활동 내용

- 이 기업은 상해 지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새옷과 장신구, 전자제품 등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여 업무에 필요한 일자리를 구체화 함
 - 상품 기획, 판매, 유통, 서비스 등 일자리를 구체화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일반인 1명 당 장애인 1명으로 구성



- 운영모델은 새 옷을 기부 받아 매장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며, 판매가 안되는 제품은 새로운 상품으로 리뉴얼 하여 판매함. 끝까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은 다른 지역으로 기증
- 상품은 온라인 포털에서 기증하면 택배가 받으러 가는 구조이며, 매장에도 기부함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인 기부보다는 기업 등에서 대량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 물품이 증가하는 추세임
- 새로운 옷으로 기부를 받는 이유는 중국의 문화가 헌 옷을 기피하기 때문에 중고물품으로는 사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임
- 이 기업은 유사 기업 등에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존재
 -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데, 미국과 영국의 성공사례를 중국의 특색에 맞게 개발함
 - 물품관리, 제고, 일자리 등 관리 시스템을 표준화 함
 - 브랜드를 만들어 좋은 기업이라는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음
 - CEO 및 구성원들이 칭와대 출신으로 탄탄한 인력구조를 갖고 있음
- 법인 형태는 비영리기구이며, 초기 창업 자금은 CEO가 조달함
- 현재 매장의 인테리어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직원의 월급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음
- 물품의 가격 설정은 기부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판매가의 30~7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 향후에는 소도시나 농촌지역을 타겟팅하여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장을 설치·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시사점

- 한국의 아름다운가게나 미국의 굿윈과 같은 모델을 적용한 기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 업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에서도 참고해야 할 만한 점임
- 또한, 국내에서도 많은 옷들이 버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다 다양한 운영모델의 사회적기업 창업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장 사진



② 교육 사회적기업 'Be Better'

□ 설립 배경

- 상하이 지역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바른 경제활동을 이끌기 위해 이 센터를 설립

□ 활동 내용

- 이 센터에서는 5개 테마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자아를 찾는 일,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돈이 어떠한 개념인지, 아이들의 권리와 참여, 어린이 창업 등임
- 정부에서 장소와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였으며, 도서관을 기초로 한 장소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과 책을 읽을 수 있으며, 경제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
- 지역주민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두 이용가능하며, 새로운 지점을 오픈할 계획임. 2020년까지 전국에 50개의 센터를 만들 계획임.
- 경제교육과 관련한 보드게임을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아프통 은행이라는 가상의 은행을 교육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들끼리 교환할 수 있게 하면서 경제 관념을 심어주고 있음
- 조직형태는 비영리기구이며, 전국에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1명이 상주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방문한 곳은 총괄 지점장과 센터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음
-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300위안의 가입비와 매달 100위안의 회비를 납부해야함
- 아이들은 8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시간에는 부모님이 직접 식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시사점

- 지역 내 부족한 교육수요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에서도 경제교육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제품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장 사진



③ 시에즈 여관(청년 취업·창업학교)

□ 설립 배경

- 시에즈 여관은 일자리를 구하러 떠난 청년들에게 숙소와 취업알선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임
 -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까임
-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의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창업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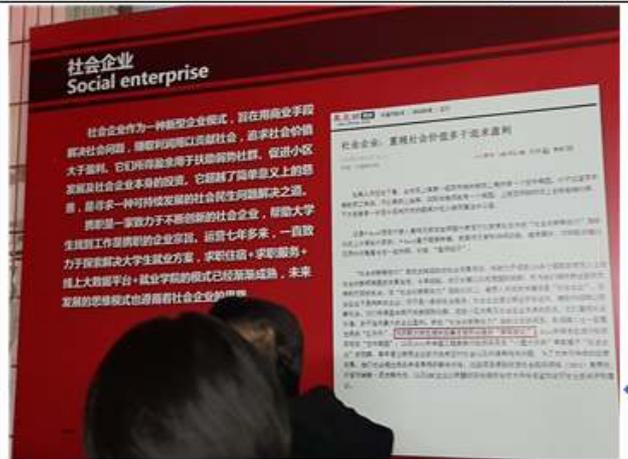
□ 활동 내용

- 시에즈 여관에는 대학생 등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첫째날 숙박비는 무료, 둘째날 부터 28위안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숙소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대학 및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DB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 약 5만 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 영역에서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영역은 크게 세가지인데, 첫째 숙박, 둘째, 교육, 셋째, 일자리 알선이라 할 수 있음
 - 첫째, 숙박의 경우 하루에 28위안 정도이며 방의 수준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음. 무료 투숙도 가능한데, 청소나 이불 정리를 지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SNS로 알리거나 하는 등으로 이용이 가능함
 - 둘째, 교육사업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예절 등을 교육하는 한편, 대학과 협력하여 취업 경쟁력 강화를 기술습득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셋째, 일자리 알선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 기업은 등애재단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지원

□ 시사점

- 시에즈 여관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청년문제를 적극적 방법을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기업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청년이 취업하기까지에 필요한 숙식, 교육, 알선을 사회적기업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델의 한국적 개량과 적용이 필요함

□ 현장 사진



④ 알리바바

